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PC(USA)는 한국전쟁 발발일과 일제강점기 해방일을 기억하며 한반도 기도와 목사의 시기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분열의 달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치유, 화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모든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망과 빛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매주 12시 14분에 휴대폰 알람을 맞추고 잠시 멈추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교회와 마을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매주 기도 안내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기도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C(USA)의 한국을 위한 기도 기간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해 주세요:
<https://pcusa.org/worship-with-us/yearbook/june-25-2026>.

여섯째 주: 화해의 복음

화해는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고린도후서 5:18, NRSVUE).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라놓는 적대감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자유와 회복, 그리고 관계의 화해를 이루어 가는 일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세대에 걸친 고통과 두려움, 원망과 불신으로 굳어진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은 분단이 주는 고통과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분단은 지속될 것이며, 그 상처는 너무 깊어 치유될 수 없다고 체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맡겨진 화해의 사명은 더 큰 소망을 선포합니다. 어떠한 갈등이나 깨어진 관계, 국가적 분열도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사람이 미치지 못할 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화해의 은혜가 한반도와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에 임하여 치유와 회복,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6주차 기도 제목

1. 남한과 북한 사이에 더 깊은 신뢰와 이해가 쌓이고, 양측 지도자들이 평화로운 대화를 이어 가도록 기도합니다.
2. 식민지배와 전쟁, 분단이 남긴 깊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한민족에게 화해와 회복,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합니다.
3.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와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과 세계의 여러 분쟁지역에서 억압과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보호와 힘 그리고 자유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5. 교회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신실하게 증언하도록 기도합니다.

LET'S ALL SET A PRAYER ALARM

THURSDAYS
@12:14PM

「WHY 12:14PM?»

Let us come together in prayer, from near and far, every Thursday at 12:14 PM from June 25 to August 15. Hebrews 12:14 says, "Pursue peace with everyone, and the holiness without which no one will see the Lord." May Jesus Christ, our Prince of Peace, bring reconciliation, healing, and renewal to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broken world.

(818) 790-6708

**La Cañada
CHRISTIAN
CHURCH**

626 Foothill Blvd, La Cañada CA